

광주은행 '지역 밀착·고객 중심' 성과

1분기 당기순이익 521억...전년동기대비 11.6% 늘어
3월 기준 코로나 금융지원 2만4608건에 1조 333억원
'브랜드 파워' 지방은행 부문 4년 연속 1위로 경쟁력 입증



지난달 27일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 4년 연속 1위 인증패를 받고 있는 송중욱(가운데) 광주은행장. (광주은행 제공)

고객 밀착 경영전략을 펼친 광주은행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1.6%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021년도 1분기(1~3월) 당기순이익 521억원(별도 기준)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당기순이익 467억원 대비 11.6%(54억원) 증가한 실적이다. 영업이익도 지난해(631억원)보다 '두 자릿수'(10.5%) 오른 697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성 지표인 NIM(순이자마진)은 2.21%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44%, 연체비율 0.39%로 은행권 최고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했다. BIS자기자본비율 17.90%, 보통주자본비율은 16.03%를 나타냈다. 송중욱 은행장이 지난 2017년 9월 자행 출신 최초로 제13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되고 1분기 당기순이익은 2017년 428억원, 2018년 451억원, 2019년 453억원, 2020년 467억원, 2021년 521억원 등으로 매년 오름세를 보이면서 4년 새 21.7% 증가했다. 앞서 27일에는 '2021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

워' 지방은행 부문 1위를 4년 연속 거머쥐며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송중욱 행장은 재연임에 성공한 뒤 연초 첫 행보로 광주·고흥·목포 등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모색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광주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실시한 금융지원은 총 2만 4608건, 1조335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광주은행은 지방은행 최고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갖춘 '리딩뱅크'를 목표로 세운 전략을 실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생생적금융 주력 ▲수익성과 비용효율화를 통한 책임경영 기반 구축 ▲혁신을 위한 명확한 방향 제시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 ▲활력있는 조직 조성 등이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평소 강조하는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을 바탕으로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를 내걸며 지역밀착경영과 고객중심의 현장경영을 펼쳐 이 같은 성장을 이뤄냈다. 그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고객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기본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이끌어내는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의 경영을 이어가겠다"며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과감한 도전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이겨나갈 것이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상생관계를 넓혀 포용금융 실천 및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강원도 감자빵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점포 지하 1층에서 강원도산 로즈홍감자를 으개 넣은 '춘천 감자빵'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13일까지 운영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 자동차 산업 생산액 3개월만에 '후진'

3월 7.3% 감소...대형소매점 매출 회복세 '코로나 이전은 아직'

광주 자동차 관련 생산액이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광주 5.6%·전남 5.0% 증가했다. 광주 광공업 생산액은 지난해 6월(-5.6%) 이후 9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전남은 지난해 12월(-

2.7%) 이후 석 달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광주 3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생산액은 1년 전보다 7.3% 감소했다. 자동차 관련 생산액이 줄어든 건 지난해 12월(-13.2%) 이후 석 달 만이다. 전년 같은 달보다 생산액이 늘어난 산업은 전기장비(26.5%), 담배(159.6%), 고무 및 플라스틱(22.2%) 부문 등이다. 전남은 석유정제품 제조업 생산액이 9.1% 감소

하며 지난해 12월(-3.3%) 이후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남에서는 화학제품(12.6%)과 1차 금속(7.0%), 고무 및 플라스틱(26.7%) 부문 생산액이 오름세를 보였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매출액)는 1년 전보다 광주 23.4%·전남 3.3%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내 확산 전인 2019년 3월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다. 2년 전과 비교해 올해 3월 대형소매점 매출은 광주 1.9%·전남 7.7% 모자라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6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1	20	29	31	33	42	4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75,231,209	9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2,915,710	73
3	5개 숫자일치					1,422,256	2,716
4	4개 숫자일치					50,000	133,764
5	3개 숫자일치					5,000	2,197,136

효성 ESG 경영위원회 출범...투명경영위 확대 ESG경영위는 기존 투명경영위가 수행해 온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심의와 주주권의 보호를 위한 경영사상 의결 등의 역할 외에도 ESG관련 정책 수립, ESG 정책에 따른 리스크 전략 수립 등의 책임을 맡는다. ESG경영위원회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 4명에서 ESG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외이사 참여를 1명 더 늘렸다. 첫 위원장은 현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정성명 사외이사(전 검찰총장)가 그대로 맡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세열굴

“건강한 산업 생태계로 경제 역동성 키울 것”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회장

“중소기업의 현안을 챙기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역동성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제9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 회장에 취임한 임경준(64) 신임 회장은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임 신임 회장은 1996년 ㈜해솔아스콘과 1999년 ㈜화이건설을 창업해 현재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광주전남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7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과 산업포장 등을 수상했다. 임 회장은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은 한전공대 설립·운영과정에서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가 활용돼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중소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는 자동차부품, 레미콘, 기계공업, 수퍼마켓, 식품가공, 아스콘, 광고물 제작 등 총 26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대광새마을금고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